

# “거문오름 지킴이... 제주의 가치 알려 부딪”

### 2019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숨은 주역 거문오름해설사회 지역주민 주축 2012년 구성 해설사 양성 현재 45명 활동

거문오름 탐방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제한된 인원, 정해진 탐방로, 기간 등이 모든 것이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을 보존하기 위함이다. 거문오름을 찾아온 탐방객들을 이끌고 이곳을 둘러싼 역사와 문화, 생태 등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 단체가 있다. 바로 거문오름해설사회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2019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여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노력과 헌신을 땀 수 없다.

거문오름해설사회(회장 현경숙)는 모두 45명으로, 2012년도에 정식



'2019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의 숨은 주역인 거문오름해설사회 소속 해설사들이 22일 행사장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으로 구성됐다. 처음에는 마을주민들을 주축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해설사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해설사를 배출하고 있다. 하루 15여명씩 조를 나눠 현장에서 해설하며 안전요원 역할을 맡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상설전시실 안내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현경숙 회장은 “해설사회원들은 탐방객에게 좀 더 많은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며 서로의 정보·지식을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다”며 “회원 중에는

동·식물에 대해 전문가 만큼 아는 이들도 있어 저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자연유산은 전 세계적으로 200여개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주가 유일하다”며 “세계자연유산과 더불어 제주의 가치를 알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거문오름해설사회는 홍보 부스를 통해 환경 지키기에도 앞장섰다. 페트병, 플라스틱 컵 등 재활용품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 체험을 통해 친환경의 중요성을 탐방객들에게 알렸다. 현 회장은 “환경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물과 자연을 지키는 것”이라며 “해설사라는 직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해설사가 아닌 거문오름 지킴이라는 생각으로 이곳을 잘 보존해 후대에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제주 '서부중학교' 토지 매입 난항

### 예정 부지 매입 협의 돌입 토지주-교육청 의견차 커 개교시기 연기 가능성도

제주시 외도동에 설립할 예정인 가정 '서부중학교' 예정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지만 토지주와 교육청 간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차가 커 개교시기가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16대 이석문 교육감 공약인 가정 서부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의 추진 경과를 22일 발표했다.

가정 서부중학교 설립 계획은 2018년 9월 5일 열린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외도동 인접지로 학교 위치 변경'이라는 부대의견이 달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 의견을 반영해 외도동 방향으로 약 280m 이동해 위

치를 변경하고,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마친 후 설립 예정지를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주부터 해당 부지에 포함된 5필지의 토지주들과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에 돌입했지만 토지가격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토지주는 판매 의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2020년 개교하려던 토지 매입 등의 문제로 올해 초 2022년으로 늦추겠다고 발표한 서부중 개교시기에 다시 이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정 서부중학교 설립 예정지 전체가 사유지인 만큼 토지 매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토지 매입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교시기에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편백나무로 연필통을... 뽕소라 다육이화분까지

### 행사장 내 체험부스 '인기'

'2019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열리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 일대에서는 다양한 체험·판매부스가 마련돼 탐방객들에게 또다른 즐거움을 제공했다.

22일 거문오름 매표소 입구에 설치된 체험·판매부스에는 선술2리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 홍보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멸종위기 생물 홍보를 위한 부스에서는 어린이들이 편백 나무로 연필통 만들기 목공예에 흠뻑 빠져들었다.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두점



22일 '2019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멸종위기 생물 홍보를 위한 체험부스에서 어린이들이 편백나무를 이용해 연필통을 만들고 있다.

박이사슴벌레 등을 보여주며 준비된 색연필로 연필통에 그리고 싶은 멸종위기 생물을 직접 그려 장식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근처 또 다른 부스에서는 뽕소라

를 이용한 다육 화분만들기 체험이 한창이었다.

체험에 참여한 박경미(44·용담동)씨는 “작고 귀여운 다육이 뽕소라 안에 있으니 너무 이쁘다”며 “몇개 더

제작해서 창가에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 홍보를 위한 부스도 제품을 맛보려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한기림 JK 백도라지 연구소가 홍보 중인 도라지 분말과 꿀은 도내에 몸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시음하려는 탐방객들로 붐볐다. 또 토끼와 거북농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스에서는 블루베리를 이용한 주스, 보리빵, 수제청 등이 탐방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외에도 행사기간 동안에는 (주)블랙푸드까망고피의 육가공 및 오메기떡 체험, 거문오름식품 도라지쥬시음, 친환경 천연소재로한 염색 체험, 로텍스 코리아 화장품 홍보 등의 부스도 운영된다. 김현석기자

## 여름철 '벌 쏘임' 주의... "7~9월 집중"

### 최근 3년간 출동 4012건

제주 벌집제거 신고가 여름철에 집중되면서 '벌 쏘임 사고'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다.

2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내 벌집제거 출동 건수는 2016년 1314건, 2017년 1232건, 2018년 1466건으로 최근 3년간 총 4012건이다. 특히 여름철인 7~9월에 출동하는 경우가 2528건(62%)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벌집제거 출동장소는 단독주택이 32.2%(1292건)로 가장 많았고, 교육·연구시설 719건(17.9%), 공동주택 298건(7.4%)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본부는 벌 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말벌은 꿀벌보다 적게는 70배, 많게는 500배의 독을 갖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옛 회천분교에 유아교육체험관 건립 추진

옛 회천분교 자리에 제주 자연을 활용한 유아들의 체험 교육 공간인 제주유아교육체험관이 건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옛 회천분교 자리에 제주유아교육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기획조정회의에서 “공유와 참여를 원칙으로 '정원 속의 제주'에 입각한 생태적이고, 제주 정체성이 잘 반영된 체험관을 만들 것”이라며 “특히 천연 일출적인 놀이 및 체험시설을 벗어나 아이들의 다양성과 도전정신, 상상·창의력을 깨우는 놀이·체험시설

을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표성준기자

##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서 수영한 탐방객

### 만수 이룬 호수에 들어가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태풍 '다나스'가 몰려간 다음 날 만수를 이룬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국립공원관리소가 이 탐방객을 찾고 있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25분께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 명이었다고 한다.

장마전선과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한라산에는 최고 10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이에 사라오름 호수에는 물이 가득 들어찬 상태였다.

관리소는 신고를 받은 뒤 진달래밭대피소 근무자를 현장으로 보냈으나 이동하는 데 30여분이 걸려서 수영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며, 아직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구역에서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 마작 도박판 일당 검거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중국 출신 귀화자 송모(38)씨와 도박에 참여하거나 방조한 인모(52)씨 등 7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 건물에서 전자 자동차 마작 테이블을 이용해 수 백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지동시스템(조색기) 구비

####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 통기성(공기는 통해도 물은 들어가지 않는)이 있어 뜯지 않습니다.

**용도** ○ 모든 콘크리트 건축물 일절 (옥상, 외벽)

\* 소비자가 인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수제 (주시공처 · 건입동 현대아파트 · 외도 일우아파트 외)

#### 한번 칠하면 오래가는 칠만표 수용성 외벽 방수 페인트

**칠만하면 100% 방수와 페인트칠을 한번에 (시간절약, 비용절약)**

<p><b>특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li> <li>○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li> </ul>	<p><b>용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li> <li>○ 타일면 ○ 벽돌면 ○ 스톤면</li> </ul>
---	--

\* 세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 싱글지붕용 탄성도막 방수제

**부식이 되어있는 싱글지붕을 칠만하면 방수되고 탄탄한 새지붕으로 바뀝니다.**

· 노형 위더스빌라 12차 · 세일자동차 외

\* 주요생산물 : 녹/회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침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줄눈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 최고급 벽난로

무동력 화목 펠릿 겸용난로 판매

\* 초기 점화 토치구에서 30초내 점화 5분이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 장작용 벽난로, 정원, 캠핑용 난로도 있습니다.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